

전일동향

전일대비 7.70원 상승한 1,378.60원에 마감

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7.70원 상승한 1,378.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30원 상승한 1,375.2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국내증시 외인 순매도에 1,370원 후반까지 레벨을 높였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결제수요 유입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1,378.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5.1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5.20	1380.80	1374.20	1378.60	1377.80
	엔화	900.99	910.92	900.13	909.73	-
	유로화	1490.89	1507.77	1490.44	1506.0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8	-6.32	-12.83	-24.96
	결제환율(수입)	-1.34	-5.31	-10.98	-21.4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대선을 주시하며...1,3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8.60) 대비 0.50원 하락한 1,376.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 관망세 속 달러 약세를 추종하여 소폭 하락 시도가 예상된다. 미국 대선은 두 후보의 승리 시나리오가 반반의 확률로 수렴하는 등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금일 개장부터 정규장 마감 직전까지 나올 주요 경합주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판세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달러는 트럼프 당선 시 상승 압력을, 해리스 당선 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환, 채권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며 달러화는 소폭 하락했다. 뉴욕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 랠리에 상승 마감했다. 한편, 유로화, 엔화는 달러 약세를 반영하여 상승했다. 금일 환율은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과 달러 약세에 주목하며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와 실수요 저가매수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0.00 ~ 1382.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34.6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0원 ↓
	■ 美 다우지수 : 42221.88, +427.28p(+1.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9.9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4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